

安命老의 생애와 『演機新編』에 대하여

柳 在 城*

1. 머 리 말
2. 안명로의 가계와 官歷
3. 『연기신편』의 성립 배경과 當代의 평가
4. 『연기신편』의 내용과 특징
5. 맺 음 말

1. 머 리 말

『연기신편(演機新編)』은 조선 중기의 문신인 安命老가 저술한 兵書다. 안명로는 조선 중기인 1620년(광해군 12)에 태어나 인조·효종·숙종 초반까지 활동한 南人系의 학자이자 정치가로 1680년(숙종 6) 庚申換局으로 유배되어 配所에서 생애를 마쳤다. 『연기신편』은 안명로가 1660년경 임진왜란·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조선 兵學의 주류로 자리 잡은 『紀效新書』 내지 『兵學指南』의 한계를 지적하며 대안적 兵법서로 구상하였던 필생의 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저술이다.

* 海東經史研究所 常任研究員

그러나 안명로는 이와같이 『연기신편』이라는 이채로운 병서를 편찬한 업적에 비해서 그동안 일반인은 물론 학계에서도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하였다. 안명로가 일생에 걸쳐 심혈을 기울인 병학에 관한 깊은 연구의 결실인 『연기신편』은 다른 저명한 병서들에 비해 양적이나 질적인 면에서 전혀 손색이 없다.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선행 업적들을 능가하는 탁월함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병학의 전개과정을 다룬 관련 서적이나 학술사를 살펴보면 그 생애와 저술에 관해 간단히 소개하는 것에 그치거나, 아예 이름조차 언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 까닭은 아마도 『조선왕조실록』 등의 연대기 자료에 『연기신편』이라는 병서를 남긴 병학가로서 보다는 도리어 숙종연간에 활동한 남인의 일원으로서 庚申換局 당시 許堅 등과 결탁하여 福善君을 왕으로 추대할 것을 음모하였다는 반역자로서의 행적이 보다 중심으로 기술되고 있는 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안명로를 복선군 추대음모사건과 연관시켜 단순히 반역자 수준의 인물로서만 평가하는 것은 일면적 사실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우선 그가 주로 활동했던 17세기 중엽부터 말엽까지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히 그 이면의 진실을 밝혀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안명로가 남인계의 인물로 활발히 활동했던 시기는 胡亂이 종식된 지 한 세대 30여년이 경과한 때로서 전란의 후유증이 가까스로 치유의 단계에 이르렀을 무렵이다. 대외적으로는 조선과 청국의 국제관계가 소강적인 평화관계를 유지하였던 반면에, 대내적으로는 西인과 남인이 禮訟論爭을 둘러싸고 정치의 주도권을 다투면서 黨爭이 격화되었던 격동의 시기였다.

더욱이 17세기의 조선사회는 명·청 교체 이후의 혼란기로서 외교적 관계가 평온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조선에 대한 청국의 군사적 압박이 언제 재개될 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였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불안한 정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병학가로서 안명로가 수행한 역할과 위상이 어떠한 것

이었던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연기신편』의 저술은 바로 그러한 시기에 안명로가 제기한 국가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의 소산이었기 때문이다.

안명로는 정묘·병자의 양대 호란의 시기에 성장기를 보낸 시대적 경험뿐만이 아니라, 조선 역사상 미증유의 대전란이었던 임진왜란 당시에 왜군과 싸우다가 순절한 충신 安弘國의 손자이기도 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조부의 遺事에 대한 자극을 가풍으로 하여 출생한 안명로의 국가안보에 대한 남다른 위기의식과 병학에 대한 집념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도 안명로는 北虜南倭, 즉 북방의 청국 오랑캐와 남방의 왜구가 머지않아 조선을 다시 침구하리라는 위기의식을 품고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연기신편』의 저술에 몰두하였다.

더욱이 안명로는 일개 말단의 지방관인 군수, 그것도 문관으로서 지방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여가에 고급의 각종 병서를 두루 섭렵하면서 당시의 조선 실정에 적합한 전술 교리서로서 『연기신편』 저술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다. 비록 호란이 종식되었다고는 하나 북변지역에서 언제 다시 호란이 엄습해올 지 모르고 역시 왜구의 침입이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언제 다시 남방 해안지역에서 왜변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것이 안명로의 인식이었다.

이와같이 북로남왜의 침략 위협이라는 강박관념 속에서 저술된 것이 『연기신편』이다. 바로 그러한 위기에 대한 돌파 방안으로서 안명로는 『연기신편』 상·중·하 세 책을 저술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안명로와 그 저술 『연기신편』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오랜 세월동안 그들에 가리워져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추측컨대 조선 초기의 『五衛陣法』과 임진왜란 이후의 『兵學指南』이라는 조선 군사체계의 주류적 흐름과는 전혀 다른 이단적 병학 이론을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그의 주장은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다시말해 『연기신편』은 『오위진법』과 『병학지남』이라는 조선 전기·후기 전술교리가 세대교체되는 전환기에 그 비판적 관점에서 독자적 안목으로 저술된 병법서였다.

그러므로 안명로는 조선 왕조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던 왜란 당시에 보성

군수로서 왜군과 싸우다가 순절한 안흥국의 손자로서 성장기에는 정묘호란·병자호란 등의 국난을 실제로 목도하면서 이에 대한 처절한 각성과 함께 대비책을 세우고 철저한 개혁을 하자고 주장한 선각자였다고 할 수 있다. 만시지탄은 있지만, 이제 『연기신편』의 국역¹⁾을 계기로 해서 안명로에 대한 연구가 각계에서 다방면으로 활발히 진행됨으로써, 수백년 동안 묻혀 있던 소중한 선현의 사상이 보다 분명하게 밝혀지고, 그리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에 그 첫 작업으로서 안명로의 생애와 『연기신편』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2. 안명로의 가계와 官歷

(1) 안명로의 출신과 가계

안명로는 정묘호란이 발발하기 7년 전인 1620년(광해군 12) 경기도 용인의 魚肥洞에서 태어났다. 자는 德叟이고, 본관은 순흥이다.²⁾ 순흥 안씨는 고려 흥위위 보승별장 安子美를 시조로 하는 성씨다. 그 가계는 시조 안자미의 제2남인 신기별장 安永麟을 중시조로 하는 이른바 順興安氏二派에 속한다. 부친은 참봉 安宗遇다. 증조부 安彦弼은 副護軍이었고, 조부 안흥국은 그 백형 忠國(僉知), 중형 匡國(虞侯)과 함께 삼형제가 同榜으로 무과에

1) 『연기신편』은 규장각·장서각·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현재까지 번역본이 출간된 바는 없는데, 관련 연구기관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번역본 간행을 위한 제반 준비를 마쳐놓은 상태이다.

2) 『順興安氏二派族譜』(國立中央圖書館 所藏 古2518-45-12), 安氏譜所編輯, 1980에 의하면 安命老의 家系는 다음과 같다. 1世 安子美(興威衛保勝別將) - 2世 永麟(神騎別將) - 3世 貞俊(吏部侍郎) - 4世 成哲(檢校軍器監) - 5世 文凱(左政丞) - 6世 千善(政堂文學) - 7世 天鳳(禮部議郎) - 8世 以寧(知敦寧) - 9世 鎮(仁順府丞) - 10世 叔孫(縣監) - 11世 世昌(保勝別將) - 12世 邦俊(司直) - 13世 彦弼(副護軍) - 14世 弘國(寶城郡守 贈左贊成) - 15世 宗遇(參奉) - 16世 命老

급제하였다. 즉 안명로의 가계는 무인적 성향이 짙은 가풍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특히 조부 안홍국은 1597년 정유재란 당시 안골포해전에서 왜 적과 싸우다가 전사하였다.³⁾

안명로는 17세 되던 해인 1636년(인조 14)에 병자호란을 맞았다. 당시 병자호란의 전화는 그의 향리인 용인 지역까지 파급되었다. 이와 같은 출신 배경 및 가계와 성장과정은 그의 정신세계에 상당한 영향과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특히 조부 안홍국의 유사는 兵事와 국방에 대한 남다른 의식이 깎을 수 있는 직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하는 소지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겠다.

(2) 안명로의 官歷

1650년(효종 1) 31세 되던 해에 안명로는 증광문과에 甲科 2위로 급제하여 벼슬에 나아갔으며, 승정원의 假注書에 보임되어 관직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652년(효종 3)에 형조좌랑이 되었는데, 소장 문관으로서 무관들 못지않게 騎馬術이 능하다고 해서 왕으로부터 준마 1필을 하사받기도 하였다. 이후 경성판관과 양재찰방을 거쳐서 양산군수로 나아갔다.

안명로는 관직에 오른 직후부터 『연기신편』의 저술에 몰두하였으며, 이미 초고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이후 적어도 1660년(현종 1) 4월 이후에는 일단 책자로서 세상에 유포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설사 정식으로 출간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 관료유생들의 지식교류의 관행으로 볼 때 필사본이 여러 벌 작성되어 지인들 사이에 상당량이 유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⁴⁾

3) 안홍국의 전사에 관해서는 『선조실록』 89권, 30년(1597, 정유) 6월 29일 무자의 기사에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4) 『연기신편』의 저술과 간행 연대에 대해서는 洪錫龜의 서문이 무술년(1658) 초가을(7월)에 이루어졌고, 金得臣의 발문이 기해년(1659) 한여름(5월)에 작성되었으며, 저자 안명로의 자서가 경자년(1660) 초여름(4월) 열엿새날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서, 이미 이 시기에 간행이 되었거나 최소한 필사본이라도 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그러던 중 양산군수로 재임하고 있던 1664년(현종 5) 직속상관인 경상감사 李尙眞이 『연기신편』 저술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戚繼光의 병제는 舊制이므로 新制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동하여 정식 발간을 지원하여 그 판본을 조정에 올렸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변의 관심과는 달리 경상감사 이상진의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리어 이상진은 그가 추천한 안명로와 함께 당시 중앙정부의 요로를 점거하고 있던 보수 관료 집단의 거센 비난과 공격에 직면하게 되었다. 당시의 그와 같은 분위기는 다음의 기사를 통해 어렵지 않게 유추해볼 수 있다.

경상감사 이상진이 양산군수 안명로가 지은 『연기신편』을 올렸다. 명로는 자신만이 홀로 『握奇』의 법을 얻었다고 여기고서 척계광의 병제를 변조하여 스스로 『연기신편』이라는 글을 찬술하였다. 이때에 이상진이 간행하여 한 질을 진어하면서 아뢰기를, '오늘날 군진에서 실행하는 것은 단지 척계광의 법인데, 도리어 五衛의 옛날 제도에 미치지 못합니다. 병사를 담당하고 있는 신하에게 물어 보고 안명로의 법을 쓰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내려서 의논하게 하였다. 해조가 경솔하게 변동할 수 없다고 하자, 드디어 그 일을 그만두었다.

안명로는 망령되고 용렬한 사람이다. 효종조 이후에 나라에서 군사에 유의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장수다운 책략이 있는 자로 자처하더니, 등급을 뛰어 넘어 발탁되어 廣州·水原·義州·平安 등지의 감사직을 맡게 되자, 내심 기뻐하여 사모한 나머지 망령스레 병서를 지어서 국가의 제도를 바꾸려 하였다. 척계광의 법이 비록 옛 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전부터 실행해 오면서 누차 시험하여 남방에서 여러 번 공이 있었다. 이것이 어찌 안명로 같은 무리가 그 득실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명로가 그 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자, 적당을 따르다가 형을 받아 먼 곳으로 귀양을 갔다. 그 사람이 이렇게 보잘것 없는 것은 논할 것도 없거니와 그 사람을 대단히 믿고서 그 글을 드러내고 심지어 간행해서 조정에 올려 이것으로 당시에 시행되게 하려 하였으니, 이것으로 보면 이 사람도 역시 알 만하다.⁵⁾

5) 『현종개수실록』 10권, 5년 1월 10일 계유조 참조.

즉, 위와 같이 안명로의 인품과 업적을 폄하하고, 경상감사 이상진마저도 극렬한 비난의 표적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후 안명로는 정치적 대립 세력인 서인층의 집중적인 견제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왕조실록』 등의 연대기 자료에 따르면 이후 그가 대간의 주요 인책 대상의 하나로 설정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이로부터 4년 뒤인 1668년(현종 9) 5월 1일에 正言 宋昌이 서천군수인 그를 탄핵하였다. 이때 송창은 안명로의 탄핵문제를 가지고 인책 사퇴하면서까지, 안명로의 체차를 요구하였다.

서천군수 안명로는 일찍이 남쪽과 북쪽 지방의 수령이 되었을 때 도처에서 정사를 잘못하였으나, 이미 부임하였기에 우선 앞으로 하는 것을 보고서 처치해도 후 늦지 않을 듯 하였으므로 즉시 논죄하지 않고 단지 대관을 찾아보지 않았다는 한 조목만으로 추고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듣건대, 물의가 그르게 여긴다고 합니다. 체차하여 주소서.⁶⁾

뒤이어 1671년(현종 12) 11월 1일에는 연서찰방으로 재임시에 경기어사 金萬重에 의해 다시 탄핵되었다.⁷⁾ 그러나 연이은 대간 및 어사의 탄핵에도 불구하고 안명로는 다시 등용되어 이듬해 1669년부터 1672년에 이르기까지 인동, 장연 등지의 부사를 역임하였다. 그러나 그의 관직 생활은 이후로도 결코 순탄치 않았다. 1672년(현종 13) 7월 2일에는 대사간 洪萬容의 탄핵을 받았고,⁸⁾ 같은 해 12월 25일에는 집의 鄭載禧의 탄핵을 받았다.⁹⁾

이후 안명로는 다시 내직으로 들어와 1678년(숙종 4) 9월 29일에 右通禮로서 兵事에 관한 군제개혁을 건의하였다. 그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산천은 險阻하기가 천하에 제일이므로 그 지형을 따라 각각 烟臺를 설치하고, 또 列邑에 각각 義兵을 두어 수령으로 主將을 삼고 土着巨戶

6) 『현종실록』 14권, 9년 5월 1일 무술조 참조.

7) 『현종실록』 20권, 12년 11월 1일 무신조 참조.

8) 『현종실록』 20권, 13년 7월 2일 을사조 참조.

9) 『현종개수실록』 26권, 13년 12월 25일 병인조 참조.

로 장령을 삼으며 士民을 編籍하여 鄉兵이라 일컬어서 信地에 分據하여 연대마다 수십인 혹은 수백인이 지키게 해야 합니다. 난리에 임하여 응거하며 지키어 賊路를 끊어놓는다면, 寇賊이 비록 경계를 범하였더라도 말을 타고 멀리 달릴 수 없으니 성벽을 견고히 하고 굳게 지킴으로써 편안히 있던 군사로써 멀리 오느라고 피로해진 적을 기다려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말하면, 한 山城의 역사는 1백 개의 煙臺를 이루기에 족하고, 한 연대의 힘조함은 열 개의 산성에 해당될 만합니다.¹⁰⁾

그러나 그의 이러한 군제 개혁 건의는 채택되지 않았다.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찌 안명로 같은 무리가 군제의 득실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라는 자질에 대한 폄하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름 아니라 당시 집권세력에 의해 그는 ‘허적의 밀객’이라고 인식되고 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개혁안은 결코 받아들여지기 곤란한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1679년(숙종 5) 3월 7일의 晝講을 기록한 다음의 기사를 통해 그러한 사정을 어렵지 않게 유추해볼 수 있다.

임금이 주장에 나아갔다. ... 임금이 이어 탄식하기를, ‘오늘날은 음악이나 天文 등의 일은 폐지되다시피 되었구나’ 하였다. 吳挺緯는 안명로가 測候에 능하다고 추천하고, 洪宇遠은 崔晚悅이 천문을 잘 안다고 추천했다. 이들은 모두 許積 집의 密客들이었다.¹¹⁾

즉 음악·천문 등의 쇠퇴하였음을 국왕이 탄식하였지만, 그 분야에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인물로 추천되었던 안명로와 최만열이 ‘모두 허적 집의 밀객’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이상, 그 능력이나 개혁안은 상대당인 서인집권 세력의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이후 안명로는 奉常寺正에 임명되지만, 1680년에 경신환국으로 말미암아 남인세력이 대거 숙청되고 서인세력이 득세하는 소용돌이에 휘말려들어 변방에 부쳐되

10) 『숙종실록』 7권, 4년 9월 29일 정묘조 참조.

11) 『숙종실록』 8권, 5년 3월 7일 임인조 참조.

어 유배지에서 사망하고 말았던 것이다.¹²⁾

(3) 庚申換局과 안명로

1680년(숙종 6) 3월 남인의 영수 영의정 許積이 그의 조부 許潛이 시호를 받은 것을 축하하는 연회를 베풀면서 궁중의 어용물인 용봉차일을 임의로 반출하여 사용한 일이 있었다. 더욱이 이 연회를 계기로 허적의 서자 허견이 병조판서 金錫胄, 광성부원군 金萬基 등 서인의 요인을 독살하고 모반을 도모한다는 유언비어가 떠돌았다. 이에 따라 숙종은 서인의 거두 金壽桓을 영의정에 임명하고, 정부 요직을 모두 서인으로 교체하고 남인 일파를 대거 축출하였다.

다음 달인 4월에는 鄭元老가 허적의 아들 許堅이 숙종의 당숙인 福昌君·福善君·福平君 3형제와 결탁하여 반역을 도모하였다는 고변을 하였다. 이에 따라 허견·복창군·복선군 등은 귀양갔다가 사사를 당하고, 허적도 불초한 자식을 엄호하였다는 책임을 물어 사사되었다. 그리고 『연기신편』 저자인 안명로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수난을 당하기에 이르렀다.

그 전말을 살펴보기 위해 허견의 역모사건과 관련된 안명로의 기사를 『조선왕조실록』에서 추출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① 1680년 4월 20일에 국청에서 이태서의 아들 이경의·이경명을 국문하고 그 관련자들의 처벌을 건의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러하였다. 李台瑞의 아들 李景毅·李景明은 복선군 추대역모사건의 연좌 죄인으로서 바야흐로 禁府에 가두었는데 … 鞠廳에서 刑訊을 시행하기를 청하여 같은 무리를 鉤問하니, 이경의가 또 納招하기를, “문관 안명로는 저의 아버지와 정이 통하여 어느 날 대화할 때에 아버지가 말하기를, ‘乾象(천문)이 이와 같으니, 만약 사변이 있으면

12) 안명로의 사망 연대는 미상이나 복성군 역모사건에 연좌되어 유배를 가게 된 1680년 직후일 것으로 추정된다. 후일 남인이 재집권한 이후에도 안명로에 관련한 기사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안명로는 저술로서 『연기신편』 외에도 『理數心性諸說』, 『安城紀略』, 『廣德山金字事績記』 등을 남겼다.

누가 송나라의 名臣 韓琦·呂端처럼 나라의 대사를 결정하겠는가?’ 하였습니다. 안명로가 말하기를, ‘이는 사직의 큰 계책인데, 그대의 말이 가장 좋다.’고 하였습니다. 於義洞에 사는 李象賢과 문관 李熙采와 또한 절친한데 말한 바가 안명로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안명로가 전일에 와서 아버지를 보고 말하기를, ‘南人이 정국을 담당하니 도리어 서인만도 못한데, 변괴가 이와 같으니 앞으로 혹은 병화가 있거나 혹은 土禍가 있거나 혹은 國恤(국상)이 있을 것이다. 만약 국홀이 있으면 이때에 儲位(세자)가 없으니 나라 일이 근심스러울 만한데, 누가 그 책임을 맡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¹³⁾

② 이와 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1680년(숙종 6) 경신 4월 22일 申斗極·金元九·이상현·안명로·이희채에게 사실 여부를 추궁하였으나, 이들은 모두 이 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러므로 대질을 시킨 결과 이경의는 이렇게 말하였다. “국가에서 같이 꺾힌 사람을 따져 물으니, 내가 어느 곳에서 알아오겠습니까? 할 수 없어서 친절한 사람을 찾아내어 고발하였습니다” 하고, 말하는 바가 마침내 앞뒤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형신을 시행하기를 청하니, 임금 이 다섯 사람에게 사형을 감하고 定配하라고 명하였다.¹⁴⁾

③ 그 이틀 후인 4월 24일에 국청에서 請對하여, 김원구·안명로·이상현·이희채·신두극에게 사형을 감하여 먼 변경에 정배하게 하였다.¹⁵⁾

④ 그 해 6월 10일에는 사은겸진주사 沈益顯·申聶·睦林儒 등이 이 사건에 관하여 청나라에 다음과 같은 표문을 올렸다. “本年 4월 초닷새날, 전 教授 정원로와 전 별장 姜萬鐵이 고변하기를, ‘영의정 허적의 妻子인 전 正字 허견과 예빈시정 이태서 등이 반역을 모의하여 중실인 복선군 李梈을 추대하려 하므로 우리들이 놀라움을 견디지 못하여 와서 고합니다.’... 이경의를 심문했더니 그가 공초하기를, ‘아버지 이태서는 매양 임금께서 질병이 많고 또 후사도 없으니, 복선군을 추대할 뜻이 있다.’라는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작년 봄 허견이 내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 일을 의논하여 의사가 합치되어 같이 계책을 정했

13) 『숙종실록』 9권, 6년 4월 20일 기묘조 참조.

14) 『숙종실록』 9권, 6년 4월 22일 신사조 참조.

15) 『숙종실록』 9권, 6년 4월 24일 계미조 참조.

는데, 이미 병권이 허건의 아버지에게 돌아가도록 도모했으나, 內外를 專制할 지위를 확립했고, 또 장사들을 선발하여 대궐 안에서 거사할 때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문관 안명로·이희채, 蔭官 이상현, 무인 신두극 등도 모두 그 계획을 들었습니다.”¹⁶⁾

위 ①, ②, ③, ④ 네 가지 기사의 골자를 요약하면 안명로가 관련된 이 사건의 진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① 4월 20일 이경의의 자백 : 국가에 사변이 있을 경우,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이태서의 말에 안명로가 찬동하였다.
- ② 4월 22일 : 관련자 신두극·김원구·이상현·안명로·이희채에게 확인한 결과, 모두 이 사실을 부인하였다. 이에 대질한 결과 이경의가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고 번복하였으므로, 임금이 이들의 사형을 감하여 정배하라고 명령하다.
- ③ 4월 24일 : 국청에서 청대하여 김원구·안명로·이상현·이희채·신두극에게 사형을 감하여 먼 변경에 정배하게 하다.
- ④ 6월 10일 : 사은겸진주사 심익현·신정·목임유 등이 이 사건에 관하여 청나라에 표문을 올려서 보고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이경의의 허위자백만을 빌미로 하여 안명로는 역모의 혐의자가 되었다. 또 자백자와 관련자들의 대질을 통하여 자백자가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음을 실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감하여 정배처분을 받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이 사건의 결말을 좌우할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던 서인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들 연관자들, 특히 안명로를 처단하지 않으면 안 될 필연적인 이유라도 있었던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 들었던 몇 가지의 예시문을 통해서 안명로에 대해 다음과 같은 修飾이 자주 이루어짐을 주목해볼 수 있다.

16) 『숙종실록』 9권, 6년 6월 10일 정묘조 참조.

- ① 안명로는 망령되고 용렬한 사람이다(安命老, 妄庸人也).
- ② 스스로 장수다운 책략이 있는 자로 자처한다(自稱有將略者).
- ③ 망령스레 병서를 지어서 국가의 제도를 바꾸려 하였다(妄撰兵書, 欲變國制).
- ④ 어찌 안명로 같은 무리가 그 득실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此豈命老等輩, 所可論其得失者哉).
- ⑤ 안명로가 후에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자, 적당을 뒤따르다가 형을 받아 먼 곳으로 귀양을 갔다(命老, 其後所望不遂, 乃追逐賊黨, 受刑遠配).
- ⑥ 사람이 이렇게 보잘것 없는 것은 논할 것도 없다(其人之無狀如此, 固不足道).
- ⑦ 그런 사람을 대단하다고 믿고서 그 글을 드러내고 심지어 간행해서 조정에 올려 이것으로 당시에 시행되게 하려 하였으니, 이것으로 보면 이 사람(경상감사 이상진)도 역시 알 만하다(崇信其人, 表章其書, 至以刊進於朝, 欲以此施用於一世者, 此其人, 亦可知矣).
- ⑧ 안명로는 일찍이 남쪽과 북쪽 지방의 수령이 되었을 때 도처에서 정사를 잘 못하였다(安命老, 曾爲南北守令, 到處見敗).
- ⑨ 안명로가 원망을 사고 법을 어긴 정상(安命老斂怨不法之狀).
- ⑩ 안명로의 사람됨이 난잡하고 교활하여 수령의 직임에 합당치 못하다(安命老, 爲人濫猾, 不合守牧之任).
- ⑪ 안명로는 전에 변방의 수령을 지내면서 추문과 비방이 많았고, 호읍(湖邑)에 제수되었을 때는 유난히 청렴하지 못하다고 알려졌다. 얼마 전 馬官에 임명되어서는 불법을 순하게 저지르면서 버젓이 침학을 부렸다(安命老曾爲邊倅, 多有醜誘, 逮授湖邑, 尤無廉稱. 頃除馬官, 多行不法, 公肆侵虐).
- ⑫ 안명로는 측후에 능하고 최만열은 천문에 통달했는데, 모두 허적의 집 밑객이었다(安命老善於測候, 崔晚悅曉解天文, 此皆積家密客也).

이상에서 나열된 그에 대한 배격과 탄핵이 누적된 결과 경신환국에서 그에게 혹독한 가중처벌이 내려졌던 것이다. 결국 안명로는 당시 그의 반대파였던 서인 지도층의 안목에서 볼 때에는 망령되고 용렬한 자로서 장수의 재능이 있다고 자처하면서 외람되게 병서를 지어서 군사제도의 득실을 논하여 전통적인 군사제도를 변경하려고 획책한 자에 불과하였다. 그러다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역적의 무리를 추종하여 반역을 도모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명로는 이미 『연기신편』이라는 새로운 병법이론서를 저술해 내놓으면서부터 반역자의 명예를 쓸 숙명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다. 그가 병학이나 천문·음양에 통달한 인물이 아니었고, 평범한 문사였다라면 아마도 그의 운명은 좀 더 다른 경로를 걷게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렇듯 안명로는 서인과 남인의 정국 주도권 쟁탈전인 경신환국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희생양이었는지도 모른다.

3. 『연기신편』의 성립 배경과 當代의 평가

(1) 『연기신편』의 저자 안명로의 문제의식

『연기신편』의 저자인 안명로는 자신이 쓴 서문에서 그 저술 동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대저 兵(군사)은 凶器이다. 옛날에 성인이 부득이하게 이를 썼다. 그러므로 軍誌에 가로되 ‘병은 백년을 쓰지 않더라도, 하루도 갖추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하였다.¹⁷⁾

17) 『연기신편』 상, p. 13, 안명로 자서.

그는 이와 동시에 송나라의 학자 張橫渠(張載)의 말을 인용하면서 일개 문사인 자신이 병학에 관심을 갖고 병서 저술에 몰두하게 된 까닭을 이렇게 말한다.

兵事を 모르면 참된 선비가 아니다.¹⁸⁾

이어서 그는 黃帝·風后 이래로부터 三代의 태평성대에 이르기까지 현명하고 어진 인재들이 적재적소에 등용되어 국가를 경영하였고, 또한 文을 經으로 하고 武를 緯로 하여 대업을 이루고 治平한 정치를 할 수 있었는데 그 까닭이 바로 장횡거가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문사가 병사를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삼국통일 이래로 문을 숭상하고 무를 경시하여 일찍이 聖朝의 역대 임금은 서로 예악문물을 이어받아 그 찬연함이 기록에 남길 만 하였으나, 평화가 오래 계속되어 세상의 장수된 자가 韜鈴(무예)을 일삼지 아니하고, 이른바 문사는 武備를 모르게 되었으므로 兵家의 大法이 인멸되고 전해지지 않아 문무의 재능을 갖춘 자가 세상에 드물게 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구한 계책을 잃고 무략이 소홀히 여겨짐이 저자 안명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당시 때보다 더 심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자신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이래로 나라의 어려움을 목격하고 兵家에 유의하여 비로소 武事가 弓馬에만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는 점을 토로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는 무릇 병가로서 행세하자면 미상불 원류를 거슬러 올라가 풍후의 『握奇』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면 兵陣에 관한 여러 병서는 소상히 알 수가 없으므로, 이른바 經文의 심오한 뜻을 깨닫기가 어려움을 강조한다. 당·송으로부터 원·명에 이르기까지 천여 년 동안 八陣의 遺制는 전해졌으나, 잘못을 답습한 채로 실마리를 찾고자 하다가 그 요체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당시 병학의 실태임을 개탄하고 있다.

18) 『연기신편』 상, p. 13, 안명으로 자서.

저자는 일찍부터 병학연구에 뜻을 두고 있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연구에 몰두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가, 1650년(효종 1)에 과거에 급제하여 이듬해인 1651년(효종 2)에 승정원 가주서로 벼슬살이를 시작한 이후에야 비로소 궁색한 생활을 면한 가운데 병학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다. 그리하여 그가 관직에 오른 1651년부터 본격적으로 병학에 관한 群書를 모아 병가 연구에 몰두하기에 이르렀다.

당시에 안명로가 보기에는 비록 經·史·子·集에서도 兵陣에 관해서 언급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것만 가지고서는 역대 병학의 변천과정을 탐색 고증하여 그 요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였다. 이에 따라 안명로는 자신의 독창적인 견해에 따라서 과감하게 『악기경』의 經文에 주해를 달고 이를 연역하여 八軍圓陣을 만들고 경문의 章句를 陣圖上에서 요약 정리하는 모험적인 시도를 하기에 이른다.

그런 다음 풍후의 握奇로부터 孔明의 八陣 및 六花와 경문을 참고하여 당·송 이래 제설의 同異와 得失을 한데 모아 그 체계를 바로잡으려 하였다. 이어서 國朝(조선)의 兵陣圖를 이름하여 陣書 1권으로 하였으며, 또 『武經七書』의 번잡한 부분을 깎아내고 그 대요를 요약하여 차례를 분류한 다음 각기 제목을 세운 것이 모두 36도(韜)로 이를 합하여 兵書 1권으로 하였다. 또 陰陽家 1권은 乾象 및 太乙·奇門의 두 法에서 병가에 요긴한 것들을 뽑아내어 실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제목을 붙여 『연기신편』이라 하여 모두 상·중·하 3권으로 구성하였다. 진서와 병서는 서로 겸용 참조하여 원리를 응용하고, 음양가도 또한 실용하여 연역한 바, 握奇 및 經文 주해는 대개 이것은 고인이 손대지 못한 부분들이었다.

안명로가 이룩한 연기신편의 저술 작업은 아마도 그가 승정원 가주서가 된 1651년으로부터 그의 친구인 홍석구가 서문을 지은 1658년 초가을(7월) 이전까지 약 7년여의 세월에 걸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저자 안명로의 자서 집필 연대가 경자년(1660) 초여름(4월) 열넷셋날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 간행 시기는 이 책의 집필이 최종적으로

완료된 1658년으로부터 2년 가량 경과한 다음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안명로는 자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술회하면서 『연기신편』 연구의 성과를 자평하고 있다.

천년을 전하지 못한 비밀을 비록 감히 스스로 일러 충분히 발휘했다고는 하지 못하겠으나, 그 大經과 大要是 또한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리라. 세상의 안목을 갖춘 이가 經文과 陣圖를 함께 놓고서 보면 그 서로 이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혹시라도 이를 들어서 수정한다면 그것이 文武에 並用하는 術로서 또한 만일의 작은 보충이라도 없지 아니할 것이라 하겠다.¹⁹⁾

(2) 『연기신편』 출간 당시 조선 지식인들의 평가

1) 『연기신편』 서문의 저자 洪錫龜의 평가

저자 안명로의 지기이며 『연기신편』의 서문을 저술한 홍석구는 그 저술의 가치를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다.²⁰⁾ 즉, 홍석구는 고급에 있어서 兵陣을 논하는 이는 거의가 다 풍후의 『악기경』을 일컫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兵이란 陰道이며 이 말은 그 이치가 너무나 깊고 심오하여, 반드시 卓絶하고 기이한 재능을 지닌 자가 있는 연후에야 능히 이치에 통달하여 이를 운용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한 사람이 없으면 그 다스림은 끝이 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살펴볼 수 있는 뛰어난 병가들로서는 鷹揚·黃石公·孫子·范蠡·管仲·諸葛亮·李靖 등이 가장 드러난 이들이나, 李靖 이후에 그 법은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후세의 군사(戒馬)에 종사하는 자들은 잘못을 그대로 따라서 변통할 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논할 만한 것이 없었으며, 간혹 재주와 지혜를 갖추고 옛 것을 좋아하는 선비가 있어

19) 『연기신편』 상, 안명로 자서.

20) 『연기신편』 상, 홍석구 서.

그 도를 밝히고자 하였으나, 문자의 말단에만 얽매이고 附會에만 집착하여 握奇의 옛 법은 더욱 멀어져 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략 또한 그에 따라 부진해져만 갔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황제·풍후가 창시한 병학의 정신은 또한 헛되거나 거짓된 걸치레가 아니었으며 그 制作이나 畧變은 일관되게 이치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으므로, 지금 비록 인멸되고 폐지되었으나 그 이치가 끝까지 인멸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치를 천명할 책임 또한 반드시 기다림이 있었으며, 그와 같은 기대에 부응하여 나타난 것이 안명로의 『연기신편』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안명로는 자못 재능과 식견이 널리 통달하여 三教·九流의 기능을 빠짐없이 숙지하고 있으며, 더욱이 太乙·星曆 등 여러 서적에 정통하였는바 왜란 종식 후 20여년이 지난 1620년에 태어나서 정묘·병자의 양대 호란을 겪으면서 개연히 국치를 설욕할 뜻을 품어 스스로 博士·弟子가 되어 兵家를 복습하고 『악기』의 뜻을 반복 시험하고 탐구하고 기획하고 깨달아 핵심을 체득함이 있는 외에도 이미 經文에 주석을 달아 그 깊은 뜻을 창달케 하였으며, 또다시 이를 演變하여 圖形을 만든 학문적 업적을 높이 평가하였다.

아울러 홍석구는 안명로가 위로는 황제의 九軍으로부터 아래로는 孔明의 八陣圖와 李靖의 六花陣의 여러 법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다 『握奇』의 이치로써 미루어 밝혔으며, 이는 마치 당·송 이래의 병학 諸家들이 서로 용납하려 하지 않던 설인 ‘涇水가 渭水로 흘러들어가 물을 흐리고 더럽게 한다’는 것을 명백히 규명하여, 마침내 그 결실로서 『연기신편』이 탄생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이 『연기신편』은 고대 이래의 여러 병학 서적들 가운데에서 君德과 將道, 內外修攘之策을 취하여 신고, 끝으로 星象·晷緯 및 太乙·奇門을 합하여 한 질의 책으로 만들었는데, 이는 또한 古人之 저술이 검비하지 못한 바로서, 그의 연구가 정밀하고 사고가 깊은 데에까지 미친 일면이라는 것이다.

비록 이 책이 온갖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거칠고 초라한 자리에 놓여져

있으나 수고로움이 적지 않아 필요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고충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유익한 병서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그는 안명로의 이러한 역작이 다음과 같은 유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德叟(안명로)의 조부이신 贈參判公(안홍국)은 일찍이 만력 정유년에 寶城郡을 지켜 戰船 한 척으로써 힘껏 싸워 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쳤다. 이 사적은 皇明史(명나라 역사)에 기록되어 찬란히 빛나고 있으니, 대개 그 평소에 축적된 바 유래가 있는 것이다.²¹⁾

즉 조부인 안홍국의 충절과 순국의 유훈이 안명로의 평소 병학에 대한 관심을 자극하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었다.

2) 『연기신편』 발문의 저자 金得臣의 평가

저자 안명로의 또다른 지기이며 『연기신편』 발문의 저자인 김득신은 그 저작의 가치를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다.²²⁾ 김득신은 자신이 고찰한 바로서는 안명로의 『연기신편』 그 자체가 兵陣의 큰 經典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김득신이 본 바로서의 『연기신편』의 저자 안명로는 천부적인 자질이 매우 뛰어나 유학·지리·수학을 모두 스승에게 배움이 없이 스스로 터득한 천재였다.

또 안명로는 시절이 어려움을 예의 주시하고,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兵家를 열심히 연구한 연구자였다. 그 결과 안명로는 풍후의 『악기경』을 연구하고 여기에 伏羲氏의 八卦를 참조한 고증을 반복하여 그 요지를 체득하고 마침내 經文에 주석을 단 다음, 그 법을 추론하고 연역하여 八軍圓陣圖를 만들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김득신이 이해하고 있는 병학의 고전은 원래 經文의 章句를 압축 요약하여 이를 썼기 때문에 결함이 적지 않았던 바, 그런 까닭으로 말미암아 당·송 이래에 연출된 진법들이 모두 『악기경』 본래의 뜻을 잃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21) 『연기신편』 상, 홍석구 서.

22) 『연기신편』 상, 김득신 발.

따라서 『악기』는 풍후 이후로부터 이 법을 알아낸 것으로서 이를 운용한 사람은 오직 太公望·孫武子·諸葛亮·李靖 등 몇몇 사람뿐이었는데, 그나마도 그 뒤에는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득신은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평소에 진법을 등한시하지 않은 결과, 조선이 명나라에 요청하여 戚繼光의 方營陣法을 배웠으나, 이는 古制가 아니고 중국에서도 시행하지 않던 진법이었던 점을 지적한다.

그 후 세월이 흘러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당하여, 이른바 척계광의 戰法은 이미 실용이 불가하다고 검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쓸모없는 진법을 그대로 따라서 변통할 줄을 모르고 있었는데, 안명로는 이미 그 까닭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안명로가 풍후의 『악기경』을 깊이 연구하고 원리를 깨달아 천년동안 전해지지 않던 실마리를 이어서 여러 고인에게 부끄러움이 없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어서 김득신은 만약 『연기신편』의 병법으로써 병사를 교련하고 열병하여 익숙하게 연습시키면 그들이 적을 제압함에 있어서 그 기여함이 클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한편 김득신도 홍석구와 마찬가지로 안명로의 이러한 역작이 다음과 같은 유래, 즉 조부의 충절과 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안명로의 조부인 贈參判公(안홍국)은 옛날 정유년에 보성군수로 統營中軍이 되어 한 척의 수군 전함을 거느리고 적의 수십 척 병선과 맞서서 힘을 다하여 싸워 이기고 죽으니, 그 사적은 『皇明通記』 및 『皇明從信錄』에 명백히 드러나 있다. 이는 바로 안명로가 이미 兵流(군사방면)에 있어서 능히 전대의 아름다운 공훈을 顯揚하여 가문의 명성을 실추시키지 않을 것임을 자임함이 여기에 있었음이라.²³⁾

3) 『연기신편』에 대한 조선 지배계층의 평가와 자세

1660년 여름 『연기신편』이 정식 책자로 간행된 4년 후인 1664년(현종 5)

23) 『연기신편』 상, 김득신 발.

에 저자 안명로가 양산군수로 부임한 것을 계기로 하여 직속상관인 경상감사 이상진이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이때 감사 이상진은 『연기신편』의 내용에 주목하고 그 해 1월 10일 이 책을 조정에 올리면서 당시에 통용하고 있는 척계광의 진법이 조선의 구제인 오위진법보다도 쓸모가 없는 병제임을 지적하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조정에 피력하였다.

오늘날 軍陣에서 통상 쓰는 것은 단지 척계광의 진법뿐인데, 오위의 舊制보다도 오히려 못하니 兵事를 담당한 신하에게 하문해 보소서.

그러자 당시 국왕인 현종은 해당 관서인 병조에 이 문제를 검토하고 논의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병조에서는 전통적인 구제를 경솔하게 변통할 수 없다는 고식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논의가 중지되고 말았다.²⁴⁾ 그런데 위의 사실과 관련된 왕조실록의 해당 기사만으로는 안명로의 『연기신편』에 대한 논의가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간단히 중지되었는지 그 까닭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현종개수실록』에서는 그 까닭이 좀더 소상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 관련 기사의 전문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경상감사 이상진이 양산군수 안명로가 지은 『연기신편』을 올렸다. 명로는 자신만이 홀로 握奇의 법을 얻었다고 여기고서 척계광의 병제를 변조하여 스스로 『연기신편』이라는 글을 찬술하였다. 이때에 이상진이 간행하여 한 질을 진어하면서 아뢰기를, ‘오늘날 군진에서 실행하는 것은 단지 척계광의 법인데, 도리어 五衛의 옛날 제도에 미치지 못합니다. 병사를 담당하고 있는 신하에게 물어 보고 안명로의 법을 쓰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내려서 의논하게 하였다. 해조가 경솔하게 변통할 수 없다고 하자, 드디어 그 일을 그만두었다.

안명로는 망령되고 용렬한 사람이다. 효종조 이후에 나라에서 군사에 유의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장수다운 책략이 있는 자로 자처하더니, 등급을 뛰어넘어 발탁되어 廣州·水原·義州·平安 등지의 감사직을 맡게 되자, 내심 기

24) 『숙종실록』 7권, 5년 1월 10일 계유조 참조.

빠하여 사모한 나머지 망령스레 병서를 지어서 국가의 제도를 바꾸려 하였다. 척계광의 법이 비록 옛 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전부터 실행해 오면서 누차 시험하여 남방에서 여러 번 공이 있었다. 이것이 어찌 안명로 같은 무리가 그 득실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명로가 그 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자, 적당을 따르다가 형을 받아 먼 곳으로 귀양을 갔다. 그 사람이 이렇게 보잘것 없는 것은 논할 것도 없거니와 그 사람을 대단히 믿고서 그 글을 드러내고 심지어 간행해서 조정에 올려 이것으로 당시에 시행되게 하려 하였으니, 이것으로 보면 이 사람도 역시 알 만하다.²⁵⁾

위의 기사를 통하여 드러난 바에 의하면 『연기신편』이라는 새 군사이론이 채택되지 않은 까닭은 전혀 公義에서의 판단이 아닌, 私意에서의 독선적인 판단에 의하여 폐기된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 거부의 이유가 주로 안명로에 대한 인품, 즉 인신공격적 비난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내용을 조목별로 분류하여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안명로는 망령되고 용렬한 사람이다.
- ② 효종조 이후 군사에 유의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장수다운 책략이 있는 자로 자처하였다.
- ③ 척계광의 법이 옛 법은 아니나 그전부터 실행해 오면서 누차 시험하여 남방에서 여러 번 전공이 있었는데, 안명로 같은 무리가 그 득실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 ④ 안명로가 그 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자, 적당을 따르다가 형을 받아 먼 곳으로 귀양을 갔다.

결론적으로, 왜란 이후로 조선 병학의 금과옥조가 되어버린 척계광 병법에 대한 도전을 제기한 『연기신편』은 실로 斯文亂賊과도 같은 불측스러운 존재였다. 당연히 당시 지배계층으로서의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다. 이

25) 『현종개수실록』 10권, 5년 1월 10일 계유조 참조.

러한 새로운 이론의 창안자는 물론, 그 지지자나 후원자 역시 용납될 수가 없는 것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었다. 결국은 이를 추천하고 간행을 후원한 경상감사 이상진도 안명로와 더불어 배척과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는 사이에 조선의 군사제도와 국방체제는 더욱 더 쇠락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져 들어갔던 것이라고 하겠다.

4. 『연기신편』의 내용과 특징

(1) 『연기신편』 상권의 내용과 특징

『연기신편』의 상권에서 저자 안명로는 최초 '구군팔진방위의 도형 : 팔괘정진진법(九軍八陣方位之圖 : 八卦井田陣法)'으로부터 마지막 '사통을 변형시켜 조운진으로 만드는 도형(四統變爲烏雲圖)'에 이르기까지 총 35개의 진도를 나열하여 중국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진법은 물론 우리나라의 진법까지도 총망라하여 그 장단점과 원리, 이해득실을 분석 평가하고 있다. 그밖에도 '악기경 주해에 대한 나의 견해(握奇經註解管見)', '전후 양단에 대한 설명(前後兩端辨)', '이제 악기경을 고정하다 : 모두 51자임(今考定握奇經 : 凡五十一字)', '진법에 대한 총론(陣法總論)' 등의 각 항목에서는 진법에 대한 자신의 독창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리고 『연기신편』 상권의 구도를 이와 같이 설정한 까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후세에) 握奇의 법이 있음을 알지 못하게 되어 무략이 소홀히 다루어졌으니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이 책은 오로지 악기를 講明하는 것을 위주로 하였으므로, 여기에서 먼저 진법의 원류를 논한다.²⁶⁾

26) 『연기신편』 상, 범례.

한편 『연기신편』 상권의 전모를 파악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아래에 먼저 그 목록을 제시하고, 다음으로 저자가 가장 주안점을 두어서 자신의 독자적인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 내부상의 특징을 해명하여 보고자 한다. 우선 그 목록²⁷⁾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구군팔진방위의 도형 : 팔괘정전진법(九軍八陣方位之圖 : 八卦井田陣法)
- 2) 구군팔문의 장교 배열의 도형(九軍八門將校排列之圖)
- 3) 구군팔문의 기정에 대한 도형(九軍八門奇正之圖)
- 4) 구군방진을 변형시켜 구군원진으로 만드는 도형(九軍方陣變爲九軍圓陣圖)
- 5) 악기경 주해에 대한 나의 견해(握奇經註解管見)
- 6) 전후 양단에 대한 설명(前後兩端辨)
- 7) 이제 악기경을 고정하다 : 모두 51자임(今考定握奇經 : 凡五十一字)
- 8) 구군방진을 변형시켜 악기팔군원진으로 만드는 도형(九軍方陣變爲握奇八軍圓陣圖)
- 9) 팔군팔문의 기와 정에 장교를 배열하는 도형(八軍八門奇正將校排列圖)
- 10) 주나라 제도의 원융 소융의 영진 배열 도형(周制元戎小戎營陣排列圖)
- 11) 제갈량의 팔행 · 방진 도형(諸葛亮八行方陣圖)
- 12) 팔문의 기와 정에 장교를 배열하는 도형(八門奇正將校排列之圖)
- 13) 팔행 방진을 변형시켜 칠군육화원진으로 만드는 도형(八行方陣變七軍六花圓陣圖)
- 14) 육화진에서 전차기병 · 보병이 진영을 통합하는 도형(六花陣車騎步合營之圖)
- 15) 오행의 원 · 방 · 곡 · 직 · 예의 도형(五行圓方曲直銳之圖)
- 16) 십삼군 십이장병진의 도형(十三軍十二將兵陣圖)
- 17) 진법에 대한 총론(陣法總論)

27) 『연기신편』 상, 목차.

- 18) 당나라 독고급의 풍후 악기진 도형 : 이 이하는 당송 이후에 잘못된 진법임(唐獨孤及風后握奇陣圖 : 此以下唐宋以後差謬陣法也)
- 18) 당나라 배서의 상산사진 도형(唐裴緒常山蛇陣圖)
- 20) 명나라 장엽이 연출한 마룡의 편상거진도형(大明張燁所演馬隆偏廂車陣圖)
- 21) 정의의 분배팔진도(正義分配八陣圖)
- 22) 송나라 자호왕씨의 분배팔진도(宋慈湖王氏分配八陣圖)
- 23) 명나라 장엽의 분배팔진도(明張燁分配八陣圖)
- 24) 척계광의 분배팔진도(戚繼光分配八陣圖)
- 25) 왕명학의 분배팔진도(王鳴鶴分配八陣圖)
- 26) 왕명학의 진법정종분진대도(王鳴鶴陣法正宗分陣隊圖)
- 27) 척계광의 방영이첩진도(戚繼光方營二疊陣圖)
- 28) 척계광의 전차 보병과 기병 진영 통합도형(戚繼光車步騎合營之圖)
- 29) 성을 지키는 도형(守城圖)
- 30) 전선 아래에 연결시킨 방영의 진도(聯船下方營圖)
- 31) 일위로 된 방진의 도형 : 이 이하는 우리나라의 진법임(一衛方陣圖 : 此以下國朝陣法)
- 32) 오위의 진영을 연결하는 도형(五衛連陣圖)
- 33) 오위의 진영을 변형시키는 법(五衛變陣法)
- 34) 사통을 변형시켜 장사진으로 만드는 도형(四統變爲長蛇圖)
- 35) 사통을 변형시켜 학익진으로 만드는 도형(四統變爲鶴翼圖)
- 36) 사통을 변형시켜 각월진으로 만드는 도형(四統變爲却月圖)
- 37) 사통을 변형시켜 언월진으로 만드는 도형(四統變爲偃月圖)
- 38) 사통을 변형시켜 어린진으로 만드는 도형(四統變爲魚鱗圖)
- 39) 사통을 변형시켜 조운진으로 만드는 도형(四統變爲鳥雲圖)
- 40) 진법에 대한 총론(陣法總論)
- 41) 붙임 : 병진과 기계의 변통에 대한 설명(附兵陣器械變通說)

위와같이 구성된 『연기신편』 상권의 특징²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저자 안명로는 講武의 道는 마땅히 韜略을 먼저하고 戰陣을 그 다음으로 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도략에 관한 武經의 諸書는 세상에 유포된 지 오래이고 諸家의 講解가 또한 자못 상세히 갖추어져 있으나, 풍후의 악기진법은 바로 진법의 鼻祖이면서도 唐代 이래로 그 법이 실전되어 후대에 전해지고 모아진 설이 더욱 번잡하고 착오가 심하여 兵家의 大經이 인멸되는 지경에 이르러, 세상의 兵事를 논하는 자들이 다시는 『握奇』의 법이 있음을 알지 못하게 되어 무략이 소홀히 다루어졌음을 개탄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저술 『연기신편』의 당초 편찬 목적이 오로지 악기진법을 講明하는 것을 위주로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먼저 진법의 원류를 논한다는 뜻에서 이 각종의 진법을 상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악기진법은 풍후로부터 비롯하여 후대에 태공망·손자·제갈량·이정 등이 그 유풀을 체득하였다. 비록 方·圓을 상호 변환시키기는 하였으나 그 대경과 대요는 하도와 낙서를 그 표리로 삼은 것이니, 당·송시대 제가들이 杜撰에 집착하였음과는 같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므로 풍후의 九軍方陣이 여기에 제시된 모든 진법의 정통 宗主가 되는 것이다.

후세에 악기진법을 추론하고 연역한 것은 獨孤及·杜佑·許洞·裴緒 및 張燁·戚繼光 등 諸家가 만든 진법이였다. 그러나 이들 진법은 모두 『악기』 경문의 본뜻을 잃고 피차의 득실을 비교한 것이므로, 저자는 여기에서 그 잘못을 아울러 기록하여 후세 연구자들의 考閱에 대비하려 한 것이다. 특히 井田·九軍方陣은 실제로 八卦의 방위를 표본으로 한 것으로서 팔진의 諸法이 모두 여기에서 나왔으므로 팔괘의 분배 및 四正·四奇의 법은 구군 방진의 법과 동일하며 팔문 기정의 변화(八門奇正之變) 및 장교거승 배열의 순서(將校車乘排列之次)는 바로 한 도면의 위에 다 기록할 수 없으므로, 매진 아래에 2~3개의 도면을 겹치게 붙여서 보는 데에 편리하게 하고 있다.

28) 『연기신편』 상, 범례 참조.

장교 배열의 법은 古制에는 보이지 아니하나 조선의 兵陣에는 四統의 법이 있어서 팔진을 참조한 결과 실상이 부합되므로 저자는 그 제도를 간략히 본떠서 각 진 위에 분배하여 식견 있는 자의 절충을 기다리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절에 제시된 각종의 진법은 단순한 백과사전적인 나열에만 그친 것이 아니고, 저자의 독창적인 견해가 부연되고 각 진법의 장·단점과 이해득실이 요연하게 제시되어 있음이 이채를 띠고 있다.

특히 맨 마지막 41번째 단락인 '붙임: 兵陣과 器械의 變通에 대한 설명(兵陣器械變通說)'에서는 『연기신편』 상권의 총론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조리정연하게 병진과 기계의 변통에 대한 자신의 제안을 전개하고 있다. 다음에 그 골자를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병진의 법제는 匠人의 規矩나 繩墨과 같다. 천하의 명장이라 할지라도 규구와 승묵 없이는 方과 圓을 만들 수 없다. 천하의 智將이라 할지라도 병진의 법제 없이는 士卒을 정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병진의 법제는 장인의 규구 및 준승과 같다. 방을 네모지고 원은 둥글며 짧음을 바로잡고 길음을 헤아려서 모양을 이루나, 정교하고 서투름이 서로 다른 장인의 공교하고 공교하지 못함에 있음이라! 이는 병진과 마찬가지로 법제와 마찬가지로이다.

방을 원으로 만들고 직을 곡으로 만들어 地勢에 따라 변형하고 때에 따라 운용하기를 능히 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어 일정치가 없으니, 장수의 경우에도 훌륭하고 그렇지 않음이 있어서 마치 장인의 정교하고 서투름에 대한 허물이 규구에 귀착되는 것과 같아, 장수된 자의 유능과 무능에 대한 허물도 병진으로 귀착되니, 그런즉 어찌 잘못이 아니겠는가?

병기의 경우에도 그 장단이 또한 고급의 다름이 있을 것이어늘, 옛날에는 劍戟으로써 短兵을 삼고 弓弩로서 長技를 삼았는데, 후세에 이르러 송나라 때에는 麻札刀와 背嵬甲이 천하의 장기가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화포가 천하의 凶器로 되어 大槓(큰 방패)과 堅甲도 의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大風이나 大雨를 만나면 화포의 공교함도 손을 쓸 수가 없을 것이니, 이 또한 萬全의 장기는 아니다. 또 화포를 輪放(교대 사격)하는 방법도 또한 좋으나 前者가 뒤로 물러나고 後者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행렬과 대오가 번거롭게 움직이고 陣勢가 紛亂하여 만약 地勢가 경사지고 험한 곳을 만나면 운방하는

법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 결과 마침내 短兵으로 서로 육박하기에 이르면, 大小의 砲火는 쓸모가 없어지고, 도리어 弓劍만도 못하게 되어 포화의 기능에 의지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이에 나의 낮은 견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매 陣의 四面에 三才(포수·장수·궁마수)를 나누어 배치한다. 포대를 앞 1행으로 하여 주둔지를 떠나지 않고 1인을 우두머리로 하고 두사람을 翼으로 하여 서로 번갈아가면서 좌우에서 裝火(화약장전)하여 전해주고, 혹은 각자도 함께 아울러 쏘아 화포 3발을 쏘게 하면 진영이 흐트러지지 않고 화포 사격이 단절되지 않아, 비록 철마가 바람의 형세를 타고 온다 할지라도 그 앞에 와서 충돌하지 못할 것이다. 그 뒤에 槍手が 위치하여 羽翼이 되고, 弓馬手が 다시 그 뒤에 위치하여, 뒤로부터 교대로 나와서 협력하여 서로 구하면 火器의 운용에 도움이 될 것 같다. 風雨를 만나면 火器를 버리고 마찰도와 배외갑으로 당적하여 이 부대로 正을 삼고, 槍手와 射手를 左右翼으로 하여 이를 奇로 삼으면 兵陣과 器械를 수시로 변용하는 법이 두 가지로 그 의당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²⁹⁾

(2) 『연기신편』 중권의 내용과 특징

『연기신편』 중권의 구성은 최초 '임금의 도리(君道)'로부터 마지막 '장수에 대한 논평(將論)'에 이르기까지 총 36개 항목을 제시하여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병법 운용 및 부대 지휘 통솔 방법을 체계적으로 요약 정리한 내용이다. 또 필요할 때마다 그 곁에 다른 여러 병서 또는 나의 견해를 붙여서 빠진 것을 보충해서 장수들의 참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먼저 『연기신편』 중권 설정의 소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武經의 諸書는 君臣간에 문답한 이야기가 많으므로 옛날의 聖主나 名臣이 兵事를 講究하여 興盛의 業을 이룩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러므로 이번에 편차를 정함에 있어서도 맨 먼저 君臣之道, 이어서 脩攘之方을 첫머리로 하여 '미

29) 『연기신편』 상, pp. 121-122.

나라를 말리는 정성(芹曝之忱)'을 표하였다 할 것이다.³⁰⁾

다음으로 『연기신편』 상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내용 전반에 대한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아래에 그 목록을 제시하고, 이어서 저자가 가장 주안을 두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부분들을 제시하여 『연기신편』 중권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연기신편』 중권의 목차³¹⁾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1) 임금의 도리[君道] | 19) 진영의 규모[步數] |
| 2) 신하의 도리[臣道] | 20) 기병과 정병의 운용[奇正] |
| 3) 장수의 선택[擇將] | 21) 진실과 거짓의 판단[虛實] |
| 4) 장수의 임명[命將] | 22) 분산과 통합[分合] |
| 5) 장수의 임무 부여[任將] | 23) 군사적 형세[軍勢] |
| 6) 군왕이 경계할 사항[君誡] | 24) 첩보 활동[間諜] |
| 7) 장수의 능력[將能] | 25) 공격 전투[攻戰] |
| 8) 장수의 인자함[將仁] | 26) 권모와 술수[權術] |
| 9) 장수의 위엄[將威] | 27) 적정 판단[料敵] |
| 10) 장수가 경계할 사항[將誡] | 28) 주체와 객체[主客] |
| 11) 계책을 수립함[謀計] | 29) 임기 응변[應變] |
| 12) 나라를 부강하게 함[富強] | 30) 수공과 화공[水火] |
| 13) 훈련과 통제[節制] | 31) 기상 조건[天時] |
| 14) 군기 유지를 위한 법령[法令] | 32) 지리적 조건[地利] |
| 15) 군의 포상과 처벌[賞罰] | 33) 부대가 경계할 사항[軍誡] |
| 16) 군사의 교육과 훈련[教鍊] | 34) 안내인의 활용[嚮導] |
| 17) 군의 장비[器械] | 35) 각종 군령[雜令] |
| 18) 진영을 설치하는 법[陣法] | 36) 장수에 대한 논평[將論] |

30) 『연기신편』 상, 범례.

31) 『연기신편』 중, 목차.

위와 같이 구성된 『연기신편』 중권의 특징³²⁾은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저자는 세상에 유포된 兵家의 제서 중에서는 마땅히 『무경칠서』를 표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 편질이 방대하고 주석과 설명이 번잡하여 증언부연하고 피차가 뒤섞여 더욱 이해가 어렵다는 점에 문제의 주안을 집중하였다. 즉 저자는 여러 가지 병서는 모두 이 『무경칠서』의 枝葉으로, 단지 독자의 정신과 눈을 현란하게 함으로써 병학연구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연기신편』의 纂集에는 오로지 『무경칠서』만을 대본으로 하여 그 요체를 요약하고, 간혹 그 곁에 다른 여러 병서 또는 자신의 독특한 견해를 덧붙여 빠진 것을 보충해서 보는 이가 상세하면서도 정확하게 병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저자는 武經을 차례로 제목을 분류하였는데, 三十六韜는 오로지 內修를 근본으로 하였으므로 ‘삼십육도 내수지책(三十六韜內修之策)’이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바로 은연중에 손자의 ‘싸우지 아니하고 사람을 굴복시킨다’ 뜻을 모방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무경의 諸書는 군신간에 문답한 이야기가 많으므로 옛날의 聖主나 名臣이 兵事를 講究하여 興盛의 業을 이룩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러므로 저자는 이 편차를 정함에 있어서도 맨 먼저 君臣之道, 이어서 脩攘之方을 첫머리로 하여 그 체계를 세웠던 것이다. 저자는 『연기신편』 중권에서도 특히 맨 마지막 36번째 단락인 ‘장수에 대한 논평(將論)’에서 이 단원의 총론적 성격으로서 역대의 저명한 장수의 장단점과 자질의 특성을 분석하여 군사지도자의 바람직한 상에 대한 독자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 내용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옛날에 用兵을 함에는 문무가 다 하나의 道였다. 용병에 있어서도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데에 마음을 두고 社稷을 安寧하게 하는 데에 마음을 다하였지, 싸움을 좋아하거나 이익을 탐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戰國時代 이래 여

32) 『연기신편』 상, 범례.

러 장수들은 인의를 버리고 거리낌 없이 적을 죽이고 유쾌한 마음으로 살육을 하여 四海를 塗炭에 빠지게 하고, 또한 그 몸을 스스로 죽였으니 가히 이를 거울삼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漢·魏 이래의 諸將들도 인의로써 군주를 보필한 자들은 반드시 능히 善終할 수 있었으니, 蕭何·張良·寇恂·鄧右·羊祜·杜預·李光弼·郭子儀·英國公 李勣·衛國公 李靖의 무리가 바로 그 예다.³³⁾

이 將論에는 孫武·吳起·范蠡·孫臏·樂毅·白起·田單·趙括·李牧·藺相如·張良·韓信·趙充國·諸葛亮·關羽·司馬懿·司馬穰苴·衛青·岳飛 등 19명의 장수들을 논평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그들의 자질과 행적의 득실을 비평하였다.

(3) 『연기신편』 하권의 내용과 특징

마지막으로 저자는 『연기신편』 하권의 편차를 3개 분야로 나누었다. 제1부 '天文抄'에서는 이십팔수분야도수재상휴구결(二十八宿分野度數災祥休咎訣)로부터 오제왕기법(五帝旺氣法)에 이르기까지 총 12항목, 제2부 '太乙寶鑑抄'에서는 엄박관수길흉론(掩迫關囚吉凶論)으로부터 태을정주객승부칠십이음국도(太乙定主客勝負七十二陰局圖)에 이르기까지 총 18개 항목, 제3부 '遁甲奇門抄'에서는 삼기육의구성팔문결(三奇六儀九星八門訣)로부터 세응병기점법(世應兵機占法)에 이르기까지 총 11개 항목으로 나누어 日月星辰·災祥·休咎의 징조를 兵事에 응용하도록 하였다. 먼저 『연기신편』 하권 설정에 대한 까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모든 天文·時日·陰陽·卜筮의 법은 대개 미묘하고 심오하므로 성인이 잘 말하지 아니하였으나, 병가에서는 대개 이를 실용했으므로 폐할 수가 없었다. 이에 諸家의 주장을 초록하여 편말에 붙였다.³⁴⁾

33) 『연기신편』 중, pp. 116-129.

34) 『연기신편』 하, 범례.

이어서 저자는 하권의 말미에 부록으로서 ① 손자의 용병가(孫子用兵歌), ② 병가의 지리에 대한 설명(兵家地理說), ③ 천시에 대한 총론(天時總論)을 붙이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글은 자못 전반부의 日月星辰·災祥·休咎의 징조를 제시하여 兵事に 응용하고자 한 저자의 의도가 180도로 전환된 듯한 이채로운 편차 구성이다. 그러나 위의 세 편의 글도 실상은 하권에서 저자가 일관되게 제시하여 온 음양천문의 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총결적 성격의 설명이라는 점에서 내용상으로 그다지 엇갈리지는 않는다.

『연기신편』 하권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 천문초(天文抄)

- 1) 이십팔수분야도수재상휴구결(二十八宿分野度數災祥休咎訣), 2) 일월오성론(日月五星論), 3) 풍기점(風氣占), 4) 운기점(雲氣占), 5) 패기(敗氣), 6) 폭병복병기(暴兵伏兵氣), 7) 출군택일법(出軍擇日法), 8) 안영택길법(安營擇吉法), 9) 육임연월일시택길법(六壬年月日時擇吉法), 10) 간주장본명법(看主將本命法), 11) 시일고허법(時日孤虛法), 12) 오제왕기법(五帝旺氣法)

■ 태을보감초(太乙寶鑑抄)

- 1) 엄박관수길흉론(掩迫關囚吉凶論), 2) 진병필출기향술(陳兵必出其鄉術), 3) 전진소리술(戰陳所利術), 4) 안영진일시술(安營陳日時術), 5) 명적국동정술(明敵國動靜術), 6) 명적사허실술(明敵使虛實術), 7) 명견문허실술(明見聞虛實術), 8) 명토포반망술(明討捕叛亡術), 9) 명시계이점제사술(明時計以占諸事術), 10) 명팔풍분주객술(明八風分主客術), 11) 명태을비조지술(明太乙飛鳥之術), 12) 태을연월일시사계첩법(太乙年月日時四計捷法), 13) 태을팔문세계법(太乙八門歲計法), 14) 명문구법(明門具法), 15) 팔문일시계법(八門日時計法), 16) 태을출병칭신법(太乙出兵稱神法), 17) 태을구궁팔문구주십륙신배열도(太乙九宮八門九州十六神排列圖), 18) 태을정주객승부칠십이음국도(太乙定主客勝負七十二陰局圖)

■ 둔갑기문초(遁甲奇門抄)

- 1) 삼기육의구성팔문결(三奇六儀九星八門訣), 2) 이원상중하결(二元上中下訣), 3) 음양둔상중하국가(陰陽遁上中下局歌), 4) 축국포삼기법(逐局布三奇法), 5) 축국포육의법(逐局布六儀法), 6) 길성초(吉星抄), 7) 흉성초(凶星抄), 8) 음양국정식도(陰陽局定式圖), 9) 양둔구국택길도(陽屯九局擇吉圖), 10) 음둔구국택길도(陰屯九局擇吉圖), 11) 세응병기점법(世應兵機占法)

■ [붙임] 병가의 지리에 대한 설명(兵家地理說)

■ 천시에 대한 총론(天時總論)

위와 같이 구성된 『연기신편』 하권의 특징³⁵⁾은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저자 안명로는 ‘모든 天文·時日·陰陽·卜筮의 법은 대개 미묘하고 심오하므로 성인이 잘 말하지 아니하였으나, 병가에서는 대개 이를 실용했으므로 폐할 수가 없었다.’는 입장에서 이에 대한 제가의 주장을 초록하여 이 단락에 수록한 것이다. 日月星辰·災祥·休咎의 징조에 대한 경우 저자는 각기 그 분야별 주관사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 그 현상 일체를 모두 수록할 수가 없으므로, 단지 그 가운데 兵家에 부합되는 것만을 취하여 기록하고 있다.

특히 太乙·奇門의 법은 음양가 최고의 大方이나 그 뜻이 너무도 산만하고 현묘하여 통달하기가 쉽지 아니하므로, 또한 요긴한 것만을 兵機에서 취하여 따로이 圖局을 만들어 口訣을 붙여 요점만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또한 저자는 이 부분에서 그 내용들이 모두 神謀秘機에 관계되는 것들로서 자신도 이곳저곳에서 주어들은 것을 엮어 놓은 것일 뿐, 감히 그 대의를 천명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솔직히 토로하고 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과연 이 단락의 내용들이 실제 전술에 적용이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허다하다. 그러나 옛 兵家들이 이것

35) 『연기신편』 상, 범례.

을 心理戰의 측면에서 활용했으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혀 무용한 것은 아니리라는 상정도 가능하다. 특히 『연기신편』 하권 마지막 단락에 붙인 兵家地理說³⁶⁾과 天時總論³⁷⁾에서 저자는 이 권에서 그가 제안한 음양·천문에 대한 보완의 의미를 지닌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5. 맺 음 말

안명로가 저술한 『연기신편』은 그 내면적인 가치와 비중에 비하여 그다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다. 조선 초기의 『오위진법』과 임진왜란 이후의 『병학지남』이라는 조선 양대 군사체계의 거대한 그림자에 가려져 그 존재가 크게 부각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일종의 이단적 병학 이론인 새로운 주장이 받아들여질 만한 토양이 당시의 조선 사회에는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안명로는 전국시대 이래 송나라 때까지 통용되었던 전통적인 陣形들을 실전에 적용하여 이미 형해화되어 버리고만 조선시대의 군사체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주리라고 확신하였다. 그는 바로 이러한 판단 아래 구군팔진도(九軍八陣圖), 연기팔진도(演機八陣圖), 제가병진도(諸家兵陣圖) 등 중국의 전통적인 진형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각종 진형의 원리와 장단점 및 이해득실을 규명하고, 이를 조선의 국방체계에 실용화할 것을 염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이론을 표현한 『연기신편』은 끝내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병법서로 채택되지 못하고 단순히 개인 저작으로 끝나고 말았다.

뒤늦게나마 『연기신편』의 국역을 계기로 하여 그와 그의 저서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오랫동안 사장되어 있던 우리 병학의 진면목이 규명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이러한 작업의 진행에 적으나마 하나의 밑거름

36) 『연기신편』 하, pp. 97-98.

37) 『연기신편』 하, pp. 99-100.

이 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서 안명로의 출신·가계와 관력, 경신환국과 안명로의 관계, 『연기신편』 성립의 배경과 성격 및 내용과 특징에 대한 분석 정리를 시도해 보았다.

그 결과 우리는 안명로 당사자 본인은 문관 출신이었으나, 그 가계가 전통적인 무반계통으로서 특히 왜란 당시에 적과 싸우다가 순국한 그의 조부 안홍국의 행적과 그가 직접 겪은 정묘·병자 양대 호란은 그가 『연기신편』이라는 우국애민의 명작을 산출해 낼 수 있는 배경이 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안명로는 1651년(효종 2)부터 본격적으로 자료수집에 들어가 자신의 독창적 견해에 따라 『악기경』의 經文을 연역하고 전통적인 진법을 통합적으로 정리하여 陣書 1권을 집필하였는데, 이를 『연기신편』 상권으로 편성하였다. 이어서 『무경칠서』의 요점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연기신편』 중권으로 편성하고, 끝으로 음양가 1권을 집필하여 『연기신편』 하권으로 편성하였다.

그가 『연기신편』 상·중·하 3부작을 완성하는데 소요된 시일은 1651년(효종 2)부터 홍석구의 『연기신편』 서문이 지어진 1658년(효종9) 초가을(7월) 이전까지의 약 7년여의 세월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 책이 정식으로 출간된 것은 안명로의 자서가 지어진 1660년(현종1) 초여름(4월) 이후일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연기신편』은 출간 당시에 이미 뜻있는 지식인들의 극찬을 받았다. 그 대표적인 지지자가 이 책의 서문을 지은 홍석구와 발문을 지은 김득신, 그리고 안명로의 상관인 경상감사 이상진이었다.

홍석구는 ‘이 책이 필요한 사람에게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익한 병서가 될 것이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김득신은 ‘이 책은 천년의 비밀 속에 묻혀 있던 풍후의 악기경의 실마리를 이은 획기적인 업적’이라고 평가하였다. 경상감사 이상진은 이 책을 읽고 나서 간행을 지원하는 한편, 이 책을 조정에 올려 채택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완고한 조선 조정의 지배계층은 전통적인 구제도를 경솔하게 변경시킬 수 없다는 고식적인 태도를 고수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기신편』 상권에서 저자는 최초 구군팔진방위의 도형 : 팔괘 정전진법(九軍

八陣方位之圖：八卦井田陣法)을 비롯한 중국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진법과 우리나라의 오위진법을 총괄 제시하여 그 장단점과 원리, 이 해득실을 분석 평가하였다.

이어서 『연기신편』 중에서 저자는 '임금의 도리(君道)'로부터 '장수에 대한 논평(將論)'에 이르기까지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간명하게 요약 제시하여 장수들의 군사 경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저자는 『연기신편』 하에서 이 부분을 天文抄·太乙寶鑑抄·遁甲奇門抄의 세 단락으로 구분하고 음양오행에 의한 천문관측 및 점법을 나열하여 이를 전투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과연 이러한 내용들이 실전에 적용될 수 있었던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지 않다. 그러나 옛 兵家들이 심리전에서 이러한 천문과 음양을 활용한 전례가 적지 않았던 사실을 상기해보면 이것이 전혀 무용한 것은 아니라는 추정도 가능할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10. 3. 30, 심사수정일 : 2010. 5. 6, 게재확정일 : 2010. 5. 10)

주제어 : 연기신편, 안명로, 병서, 병학, 국방, 진법, 오위진법, 병학지남, 기병, 정병

<Abstract>

A Study on the Ahn Myeong-ro and *Yeongisinpyeon*

Ryu, Jae-sung

Yeongisinpyeon 『演機新編』 is the book on the art of war written by Ahn Myeong-ro(安命老) who had been a civil minister in the middle of the Joseon Dynasty. Since 1620 when he was born, he had been active as the scholar and politician from times of King Gwanghaegun(光海君) to King Hyojong(孝宗). And he died after 1680.

Though one of his books, *Yeongisinpyeon*, is a great work, he has not been famous enough. His research for the art of war for his life time and *Yeongisinpyeon* as a result are not second to any other famous the book on the art of war for its quality and quantity. Rather, it is greater than other existing works. But he has been nearly shunted aside by books and history for development process of the art of war in Korea.

He has not been known well as the author of *Yeongisinpyeon*. He has been rather known better as a traitor, who tried to make Prince Bokseongun(福善君) as a new king instead of King Sukjong(肅宗).

Then, why have he and his book, *Yeongisinpyeon* been not well know to the public? It is assumed due to following reasons. At the earlier times in the Joseon Dynasty, the main military system was effected by *Owi-jinbeop*(五衛陣法). And after the war between Joseon and Japan(Japanese Invasion, 壬辰倭亂), it was done by *Byeonghak-jinam*(兵學指南). Ahn Myeong-ro's *Yeongisinpyeon* was totally new theory on the art of war, different from such tractional military systems. So this new suggestion had been necessarily neglected. Currently, this book has been one of the collections of Gyujanggak(奎章閣) Archives, Jangseogak(藏書閣) Library, the National Central Library of Korea, and etc. The

translation of this book has not been published, but Institution for Military History Compilation(國防部軍史編纂研究所) has prepared all required for publishing the translation. On this, I wrote this document for the preceding work. This paper has been processed by following procedure. Firstly, the pedigree, public service career, and the relation to a big change of regime in 1680(庚申大黜陟) were reviewed. And then, tried to examined his achievement taking a general overview of the background information, characteristics, the contents, and features for *Yeongishinpyeon*.

Key Words: *Yeongishinpyeon*, *Ahn Myeong-ro*, a book on military science, strategy, national defense, disposition, *Owjinbup*, *Byunghakjinam*, a strange custom, the regular tactics for attack